

SBS 사우 3대 덕목
서로 이해하는 마음
서로 존경하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

제 15호 2010년 7월 1일

SBS 사우회보

발행처 SBS사우회 150-89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 태양빌딩 605호 Tel 02)783-0590~1 Fax 02)785-9805 E-mail sbsau@hanmail.net 발행인 임형두 편집인 이시권 편집디자인 이레기획

국립광릉수목원은 사우회 나들이에 최적지였네!



SBS 사우회의 연례행사인 춘계야유회가 5월 15일(토),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국립광릉수목원에서 있었다. 관광버스 2대로 현장에 도착한 사우들 대부분이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와 보고 처음이라며 추억의 세월을 감회로 나타냈다. 수목원 숲

해설가의 안내로 피톤치드가 뿜어져 나오는 전나무 숲을 가로지르는 산책로와 동물원, 식물원 등을 돌아본 뒤 주변 고모피저수지 옆 식당에서 푸짐한 오전을 즐겼다. 식사 후에는 다시 광릉조선 제7대 왕 세조와 정희왕후 윤씨의 무덤을 돌아보았

다. 이 날은 날씨가 화창하고 기온도 최적인데다 사우회가 준비한 선물이까지 더해 봄날의 하루를 유쾌한 마음으로 만끽한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었다. 한편 '동표골뱅이' 대표인 장상훈 사우는 110만원 상당의 골뱅이 캔을 선물로 협찬해 주었다.

사우회 여성회원 별도 모임체 신설 가칭 'SBS 여우회(女友會)' 발족

전체 사우회원 중 10.3%를 차지하는 여성회원들만의 모임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남성 위주로 사우회가 운영됐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더 많은 여성회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임형두 사우회장은 모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초대 회장에 변순복, 부회장 이영혜, 간사에는 신선미 사위를 임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7월 중안내할 예정이다.

11월에 사우회원 '홈커밍데이' 초청 창사20주년 기념으로 SBS 목동사옥에서

SBS가 금년에 창사 20주년을 맞는다. 본사에서는 11월 중 사우회원 가족을 초청하는 홈커밍데이를 기획하고 있다. 신사옥 시설안내, 회사현황 브리핑, 현직 사원들의 환영행사 및 환영연 등으로 짜여 질 예정인 홈커밍데이는 연말 '송년의 밤'을 대신하는 가장 큰 규모의 모임이 될 것이다. SBS 목동 사옥은 2004년에 건설 이전되었다. 따라서 2004년 이전 퇴직사우는 목동 사옥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기회에 발전한 SBS의 위상을 직접 보게 된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와 참석을 바라고 있다.

맹형규 사우, 행정안전부장관 취임



1991년부터 95년까지 SBS 8뉴스 앵커로 명성을 날렸던 맹형규 사우가 지난 4월 15일, 제 3대 행정안전부장관에 취임했다. 2008년 행정안전부로 개편된 행안부는 소속기관으로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인터뷰 기사 3면)

SBS 월드컵 중계 합격점 받아 전 경기 생중계 저력 돋보여

남아공에서 개최되고 있는 월드컵 경기의 단독중계를 맡은 SBS가 전 경기를 차질없이 생중계로 진행하는 저력을 보였다. 총 64 경기를 생중계함으로써 국민들이 시청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했을 뿐 아니라 한국방송 최초로 현지에 BBC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국제신호 자막을 한글화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계방송을 선보였다. SBS는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 이어 월드컵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완수함으로써 회사 브랜드 상승효과까지 얻게 되었다.



社友 斷想



글/ 이 동 훈 사 우

지금까지 온 길, 느리지만 계속 가고 싶다

아파트 단지 내 화사한 모습의 봄꽃들이 자태를 뽐내던 때가 잊
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며칠째 내린 비로 나
무들은 초록의 싱그러움으로 풍성해졌고 거실에서 바라보는
창 밖 풍경은 언제나 평화롭다. 아침, 저녁으로 시끄럽게 종알
대던 새들의 지저귀이비 때문에 들을 수 없었는데 오늘은 잠졌던 목이라도 풀셈인지 목
청을 마구 뽑아댄다. 한 낮이면 꼬맹이들의 떠드는 소리에 가끔은 짜증도 나지만 그것도
잠깐, 썰물처럼 빠져나간 그 자리는 개미들의 행진 소리도 들릴 만큼 적막해진다.
창문을 열면 바로 어린이 놀이터다. 이곳을 나는 나의 정원이라고 부른다. 조그마한 놀이터
는 나무들이 둘러싸여 숲속에 갇힌 듯하다. 그래서 자주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하곤 한다.
나는 의외로 주위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편이다. 그래서인지 무미건조하고 단순한 일
상생활을 나름대로 즐기기로 마음먹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떠들썩하면 떠
들썩한 대로, 적막하면 또 그 멋에 쉽게 젖어 들어 빠지기도 한다.
휴대폰 벨소리가 요란하다. “선배님 이번 달 모임은 〇〇 호텔 뷔페 식당입니다.”
SBS재직 이전에 근무했던 방송위원회 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는 후배의 전화다. 젊음
을 발산했던 역전의 용사들이 이제는 세월의 흔적을 온 몸에 묻히고 모두들 도를 닦
는 도사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 슬프기도 하고 잊혀져 가는 그때가 그리워진
다. 그때는 하고픈 일도 많았고 정말 열정적이기도 했는데 계획을 미루다 게을러 하
지 못한 게 지금은 많은 후회가 된다. 나 또한 세월이라는 포승줄에 묶여 내 의지가 아
닌 세월에 밀려 자꾸 끌려간다는 허무감도 없지 않다.

요즘은 산에 꾸준히 오른다. 산 좋고 물 좋은 남쪽지방이 고향(마산)이라 어릴 적부터 높이
문화가 거의 없고 즐길 수 있는 곳은 산뿐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산을 좋아 할 수밖에 없었
다. 그때 단련된 체력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인지 산을 오르는데 별로 겁나지 않는다. 다만
조금 허덕일 뿐이다. 사람들은 할 일 없이 바쁘다는 말을 자주한다. 아내는 나보고 “뭐 그리
바쁘게 왔다갔다 하느냐”고 의아해 한다. 메모지의 등산모임 표지를 보고하는 말이다.
나는 “할 일이 없으니까 더 바쁜 거지” 라고 말은 하지만 웃음이 나온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무대가 중지되거나 사라졌을 때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 타의견 자의견, 모든 걸 접고 다시 시작해 보려는 인생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더듬어 보며 현재를 즐기며 여유롭고 풍성한 나
날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인생도 있을 것이다. 꼭 물질적으로 따지지 않고 어떤 마음
을 가지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참 먼 길을 왔다. 내가 있는 이곳은 어디쯤이며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아
직까지 알 듯 모를 듯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여기까지 온 그 길을 계속해서 그
러나 이제는 조금은 느리게 가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지금과 또 다른 깊고 소
중한 인연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무대에서 새로운 만남의 장이 된 SBS 사우회의 동호
회 모임이 내 마음속에 빛나는 보석이 되어 마음의 부자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찬란한 여름, 보석같이 빛나는 7월이라는 계절, 나의 대표자이며 나의 멘토이기도 한
“나”를 그 빛나는 계절의 품에 안겨주고 싶다.

사우 동정



조 한 선

<리얼리티비전 프로덕션>대표인 조한선 사우가
SBS TV의 「백세 건강스페셜」(월 12:30~1:30,
재방송 日 06:10~06:40과 경인방송의 「경제 스
페셜 - 실패는 없다」(월 밤 10:00~11:00)를 수주
했다. 한편 다큐영화 「바다사자를 찾아서」를 7월
에 시중 영화관에서 개봉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고



송 선 무

방송제작 프로덕션 「비온드미디어」를 설립하
여 대표이사 됐다. 주소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1 LG에플라드 624호.



차 성 모

강원방송 전무 임기를 마치고 「(주)코엔그룹」
상임고문이 됐다. 「코엔」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공연사업, 스타 매니지먼트, 신인발굴
사업을 하는 종합미디어 회사이다.



홍 순 철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인 홍순철 사우가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서울시립교향악단
유럽 순회공연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기 위해
동행 취재하고 돌아왔다.



이 장 수

「모고스필름」대표인 이장수 사우가 6월 23일
부터 MBC를 통해 방송되는 드라마 「로드 넘버
원」 연출을 맡았다. 전쟁이라는 역사의 폭풍우
를 견디고 피어난 들꽃 같은 사랑 이야기를 그
린 드라마로 20부작 미니시리즈이다.



김 수 웅

사우회 부회장인 김수웅 사우(한국가톨릭
커뮤니케이션 협회장)는 6월 7일(월), 프레
스센터 19층 국제회의장에서 “안중근 의사
와 동양평화 사상”이라는 주제로 가톨릭
언론인포럼을 개최했다.



박 재 규

박재규 사우(사우회 운영위원)가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마리나병원> 총무이사에
부임했다.



박 오 중

SBS 아트텍 녹음실 운영을 맡아 계속 일하게
되어 감사하며, 바둑동호회 총무로서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았다.



이 은 범

7월 1일자로 설계 및 감리전문회사인 「(주)
지원파트너스」이사에 임용되었다. 이 회사
는 SBS 목동사옥을 설계 감리한 종합건축설
계회사 「일건C&C」의 새로운 이름이다.



김 병 운

7월 15일 출범하는 「MBC플러스 골프」의
부사장으로 취임했으며 오픈 기념 이벤트를
색다르게 준비하느라 밤잠을 설친다고...



이 상 훈

살아있는 동안 부모님께 꼭 해 드려야 할 32가
지 마음의 선물을 내용으로 한 책, 「더 늦기전에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리세요」를 펴냈다. 눈물
을 자아내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효’의 의미를 되짚어 볼수 있는 책이다.



신 선 미

대표로 있는 (주)위저드하우스에서 ‘강지혜의
Once Again」을 새로 출판했다.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강지혜의 두 번째 싱글 타이틀 곡으로,
부드러운 팝발라드에 랩을 가미한 음악이다.

신입사우소개 (4월 ~ 6월 가입자)

- 공지영** 서울 강서구 염창동 (011-745-2391, 리얼리티비전 프로덕션 총무)
- 민대식** 서울 동작구 상도동 (010-3720-2517)
- 손석기** 서울 서초구 서초2동 (010-3898-9388, SBS 골프채널 캐스터)
- 양진규**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 (010-3218-0473, 주부)
- 윤균일**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010-8903-6320)
- 이병정** 서울 마포구 도화동 (010-3757-6757)
- 이재욱** 인천시 서구 당하동 (010-5330-3704, 한국HD방송 카메라팀장)

- 정일종** 서울 강동구 둔촌동 (010-8836-6883, 대림대학 전자통신과 출강)
- 지병복**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010-6425-3491, 대구세계육상대회 방송지원팀장)
- 최봉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010-5229-1298, SBS아트텍 아트1팀 세트 담당)

연회비 내신 회원 (4월 ~ 6월 각 2만원)

- 곽영범, 권재홍, 권정일, 김병운, 김유주, 김임순, 박재규
- 양진규, 유정, 윤병철, 이수영, 이재욱, 전병래, 천영일
- 최선규

종신회비 내신 회원 (각 20만원)

- 민대식, 박상범, 박영호, 서정윤, 손석기, 송경철, 엄효섭
- 염성호, 이병로, 장동욱, 전용학, 정일종, 지병복, 최봉기

경 조 사 항

- 부음
5월 6일 전윤표 빙모상 5월 17일 장동욱 모친상
- 결혼
4월 27일 윤공섭 장녀 5월 10일 김정택 장녀

社友 인터뷰 - 행정안전부 장관에 취임한 맹형규 사우



소중한 인연으로 남고 싶은 SBS 사우회

SBS 개국시 워싱턴특파원을 시작으로, 1991년부터 5년간 '8시 뉴스' 앵커맨으로 온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맹형규 사우.

1996년에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인으로 탈바꿈한다. 한나라당 대변인(1997년), 총재비서실장(1999년), 제16대 국회의원(2000년), 제17대 국회위원(2004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2005년), 대통령실 정무수석(2008년), 청와대 정무특별보좌관(2009년), 그리고 지난 4월 15일 행정안전부 장관에 취임함으로써 1972년 통신사 기자로 출발한 인생여정이 한번도 쉬없이 숨 기쁘게 달려왔다. 이제 그를 만나본다.

■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 2달 반이 지났으나 우리 회보가 기간이어서 축하인사가 늦었습니다.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처 전 직원에게 미국작가 스모키 린의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시가 담긴 서한을 보냈는데 행안부 내에서 반응은 어땠나요? 아울러 이번 기회에 사우회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SBS 사우회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SBS를 방문하여 취임인사를 나누었습니다만 사우회원들께도 다시 인사드립니다. 우리 SBS가 방송문화를 선도하는 중추적인 방송사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사우 여러분께서 노력하신 귀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취임하고 첫 번째로 현장방문한 곳이 '중앙119구조대'였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앙119구조대는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온 몸을 던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분들로부터 받은 감동을 행정안전부 직원과 공유하기 위해 그 시를 취임서한으로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낸 이후, 가슴 뭉클했다는 반응과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SBS 근무기간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햇수로 6년이었지만, 아마도 SBS개국 첫 앵커이기 때문인지... 어땠던 'SBS 8시뉴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맹형규 사우가 있습니다. 동감하는지요?

- 창사 초기부터 SBS는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차별화된 방송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1시간 빠른 뉴스 'SBS 8시 뉴스'입니다. 뉴스는 당연히 저녁 9시에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타 방송사보다 1시간 빠르게 종합뉴스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어,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시청자들의 방송패턴을 바꾼 것입니다. 이러한 'SBS 8시뉴스'의 혁신적인 접근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께서 'SBS 8시 뉴스' 하면 맹형규를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무척 감사한 평가입니다.

■ 메인 뉴스 앵커시절 우리가 잘 모르는 뒷 얘기도 많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털어놓아 주시면 어떨까요?

- 생방송이다 보니 긴급한 뉴스에 즉흥적으로 대처해야 했던 일들은 보도국이나 방송업무를 하는 분들이면 누구나 겪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가 진전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했던 일, 21세기 정보화 시대로 향하는 대변혁의 출발점에서 사회변화를 알렸던 일 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얼굴표정, 멘트의 높낮이, 하물며 넥타이까지 뉴스의 신뢰감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품위 있고, 격조 높은 방송으로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 바쁜 가운데에서도 SBS 사우회 모임은 빠지지 않으려 노력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는 사우회에 대한 관심을 더 쏟아주었으면 하는 데 강요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시겠조?

- SBS는 제가 6년을 함께 했던 곳이며, 저에게 세상을 보는 지혜와 용기를 준 곳입니다. 그러기에 SBS와 사우회에 대한 저의 관심과 애정은 식지 않을 것입니다. 사우회 모임에 가 급적 참여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여러 가지 일로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SBS 사우회와의 인연이 소중했으면 합니다.

■ 누구보다 정신적인 중노동자임에는 틀림없을 것으로 봅니다. 건강관리에 소홀하지는 않는지? 짬을 내어 여기생활은 하고 계신지요?

- 행정안전부장관을 2달여 수행해 보니, 행안부 장관의 일이 정말 넓고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많은 일들을 판단해야 하고, 지속적인 긴장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중요한 행사에 참석해야 하다 보니 솔직히 건강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산을 좋아합니다만 요즘은 쉽게 시간이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건강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이시권 편집장

동호회 활동

<골프동호회>

회장 이충기 / 총무 천영일



4월 29일(목) 춘계대회 천안 에머슨CC

대회결과 :

우승/이충기, 준우승/ 배성례, 메달리스트/ 천영일



<바둑동호회>

회장 엄광석 / 총무 박오중



4월 10일(토) 사우회 및 본사 합동바둑대회

대회결과 : 고장석 A조 1위, 엄광석 B조 1위, 박오중 B조 3위,

윤충의 C조 4위, 주일청 D조 5위

◆ 9월 4일(토) 사우회 창립기념 바둑대회 예정 ◆

<등산동호회>

회장 유용우 / 총무 성준호



4월 10일(토) 북악산 및 인왕산

5월 8일(토) 우면산

6월 12일(토) 대모산



<트레킹동호회>

회장 박건삼 / 총무 이찬휘



4월 24일(토) 몽촌토성

5월 29일(토) 남산

6월 19일(토) 현충원



<문화예술동호회>

회장 이재명 / 총무 김정민



5월 18일 강남씨티극장 (영화 로빈후드 관람)



단 신

2010년도 사우회원 수첩 발송

새로 제작 발행한 사우회원 수첩을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현직 등을 사진과 함께 실었으며 수령하지 못한 회원은 사우회 사무처로 연락 주기 바란다.

본사 소식

SBS 미디어센터 기공

새로 건립될 SBS미디어센터 기공식이 5월 18일, 서울 상암동 현장에서 열렸다. 2012년 7월 완공 예정인 SBS미디어센터는 SBS, SBS 플러스, SBS 골프, SBS콘텐츠허브 4개사가 공동출자하였으며 지하 5층, 지상 17층 규모로 연면적 15,955평으로 건설된다. 완공 후 방송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한 장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



'너섬'의 나섬이

성공을 부른 월드컵 단독중계

SBS의 단독중계
대한민국 승리 부른다! 등식확인!
벵쿠버 올림픽 이어
남아공 월드컵 첫 원정 승리 거머 쥐 !!
2014년 브라질서도 또 단독 중계해야 하나?
단독 중계 맛 들었더니 정말 좋지만
K씨 M씨에게는 미안하니.. 우짜면 좋노!

동호회, 활발하다 못해 활활

등산, 트래킹, 더 이상오를 곳 걸을 곳 없어 아여성
골프동호회에는 타이거 우즈도 들이대고
바둑동호회는 黑猫白猫 세상을 평정하네

회원의 문화예술 수준은 모두가 알아주지만
입맛대로 다 낚시하고 싶은데 시간내기가 안되니
안타까울뿐 !!

兩性시대 선도하는 사우회

여성이 우대받는 세상보다..는
남녀 동등이 바람직,
언론사 사우회 최초의 여성모임 만들어
양성시대 실현하니
여성 동지 여러분, 사우회 운영에 앞장서기 위한
준비 부탁드립니다.

▶너섬은 여의도의 숲 우리말입니다
▶SBS사우회가 항상 활기차게 나선다는 진취적 의미를 담고
▶세상만사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나섬이의 풍자와 해학을 그려내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이찬휘 사우의 건강다이제스트

남성이 무너진다!

정말 용기 있는 환자를 만났 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이었지만 수심이 가득한 얼굴과 무엇인지 자신감 없어 보이는 모습에 10살은 더 들어 보였습니다. 우선 인터뷰에 응해 주신 용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갑자기 부부 관계를 하다가 남성이 죽어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후로는 무서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죽고 싶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나? 남의 일로 생각했는데..."

인터뷰는 계속됩니다. "남자로서 다 됐구나 생각하니 서글펐다. 그 심정 말로 다 못하겠다" 사실을 알고 부인은 몸에 좋다는 거라면 뭐든지 먹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 후로 집사람과 사이가 점점 나빠지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그러니 자꾸 집사람을 피하게 됐지요 병원이요? 일단 이런 병에 걸린 것을 인정하기가 무지 싫더라고요" 이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성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부부관계도 정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매사에 자신이 생겨 하는 일도 너무 잘 된다고 기뻐했습니다. 인터뷰 마지막 말은 "발기부전으로 고통 받고 계신 남성분들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찾으세요. 정답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남성들은 살아가는데 성생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9%나 됩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31개국 중에서 1위입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선뜻 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에게 상담을 받는 사람은 2%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펼쳐집니다.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발기부전이 성인병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이나 고혈압을 가진 분들은 절반 이상이 발기부전 환자입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에 걸렸을 때 발기부전이 먼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찾아 원인을 알아내면 성인병을 미리 예방하고 조기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발기부전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방법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다음은 흡연입니다. 담배에 들어 있는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성기로 들어가는 혈액을 막아 발기부전이 오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과도한 음주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치료법은 엄청 많습니다. 우선 FDA에서 공인받은 발기부전 치료약들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됩니다. 그런데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이 약을 사용하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밖에 주사약으로 치료하거나 그래도 안 되는 환자는 수술치료도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라고 권해 드립니다.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발기부전을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보약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우선 담배를 끊어야 하며 운동은 30분 이상씩 등에서 땀이 흐를 정도로 해야 합니다.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산 등 다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부부가 같이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필자 / SBS, SBS CNBC 의학전문기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SBS아트텍은
최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무대미술, CG, 조명, 음향, 카메라중계등과
프로그램제작, 정보통신사업,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통합역량 서비스 업체로서
고객 여러분의
비전과 문제해결에 최선의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